



## 미국 대도시, 소득계층 간 주거지역 분리현상 심화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스텐포드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평균 가계소득이 높은 지역과 평균 가계소득이 낮은 지역의 비중은 증가했으나, 평균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스텐포드 대학이 117개 대도시 내 지역별 가계소득을 조사한 결과 1970년 65%에 달하던 중간소득지역 비중은 2007년 44%로 감소하였으며, 1970년 15%에 불과하던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 비중은 33%로 상승했다고 밝힘.
  - 이는 제조업 등 중산층 일자리 감소로 중산층 인구가 감소하고 고소득층이 점차 중·저소득층의 접근이 어려운 고급화된 교외지역에 모여 사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소득계층 간 주거지역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.
  
- 일부 학자들은 소득계층 간 주거지역 분리가 단순한 소득 양극화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.
  - 소득계층 간 주거지역 분리는 소득이 상이한 그룹 간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저소득지역 아이들의 경우 그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웃을 접하기 어려워지며 수준 높은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게 됨.
  - 소득격차 확대는 아이들의 학업성과 대학졸업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하버드대학의 윌리엄 윌슨 교수는 소득격차 확대가 고소득층과 중·저소득층의 삶을 근본적으로 차별화시키고 공동체의식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강조함.
  - 그러나 하버드대학의 로렌스 카츠 교수는 소득계층 간 주거지역 분리가 가계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소득계층 간 분리현상이 특별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기는 힘들다고 주장함.

(New York Times, 11/15)